

“올림픽때 400m 세계新 깬다”

박태환 귀국 회견...“일본대회 후 확실한 자신감”
“1,500m 우승 못했지만 라이벌 자료 수집 만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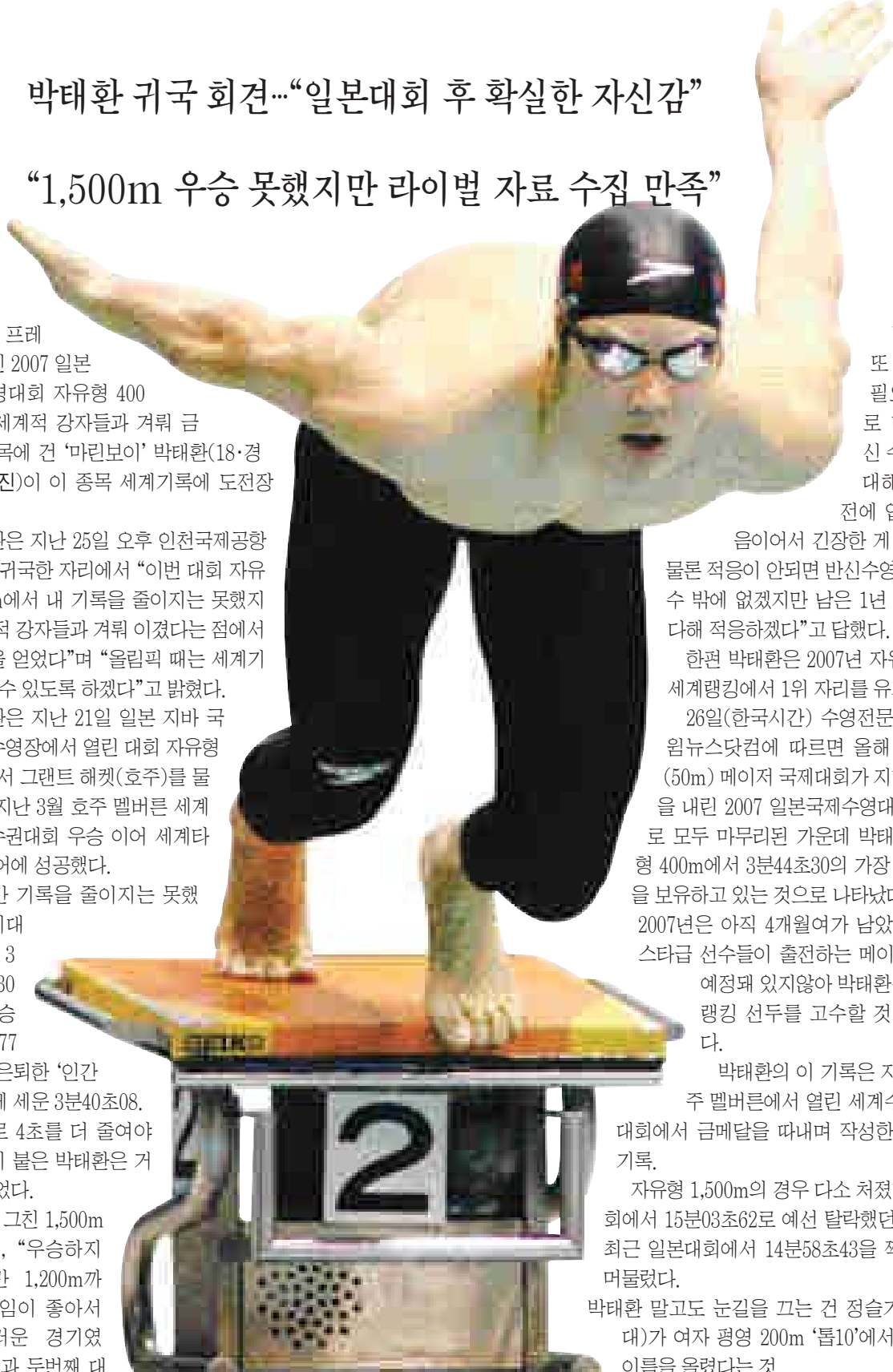
수영 프레 올림픽인 2007 일본 국제수영대회 자유형 400m에서 세계적 강자들과 겨뤄 금메달을 목에 건 ‘마린보이’ 박태환(18·경고·사진)이 이 종목 세계기록에 도전장을 냈다.

박태환은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자리에서 “이번 대회 자유형 400m에서 내 기록을 뛰어넘지는 못했지만 세계적 강자들과 겨뤄 이겼다는 점에서 자신감을 얻었다”며 “올림픽 때는 세계기록을 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지난 21일 일본 자바 국제종합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자유형 400m에서 그랜트 해켓(호주)을 물리치고 지난 3월 호주 멜버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우승 이어 세계타이를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기록을 뛰어넘지는 못했다. 세계대회 때는 3분44초30으로 우승 3분44초77 기록은 은퇴한 ‘인간 2002년에 세운 3분40초08. 앞으로 4초를 더 줄여야 자신감이 붙은 박태환은 거침이 없었다.

3위에 그친 1,500m와 관련, “우승하지 못했지만 1,200m까지 랩타임이 좋아서 만족스러운 경기였다. 해켓과 두번째 대결이었는데 많이 배웠고 올림픽을 앞두고 라이벌에 대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어서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또 적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전신 수영복에 대해서는 “실전에 입은 건 처음이어서 긴장한 게 사실이다. 물론 적음이 안되면 반신수영복을 입을 수 밖에 없겠지만 남은 1년 간 최선을 다해 적응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태환은 2007년 자유형 400m 세계랭킹에서 1위 자리를 유지했다.

26일(한국시간) 수영전문사이트 스포츠뉴스닷컴에 따르면 올해 정규코스(50m) 메이저 국제대회가 지난 24일 막을 내린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를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박태환은 자유형 400m에서 3분44초30의 가장 빠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은 아직 4개월여가 남아있지만 향후 스타급 선수들이 출전하는 메이저 대회는 예정돼 있지 않아 박태환은 이 종목 랭킹 선두를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의 이 기록은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작성한 아시아인 기록.

자유형 1,500m의 경우 다소 처졌다. 세계대회에서 15분03초62로 예선 탈락했던 박태환은 최근 일본대회에서 14분58초43을 찍어 8위에 머물렀다.

박태환 말고도 눈길을 끄는 건 정승기(19·연세대)가 여자 평영 200m ‘플10’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

최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하계유니버시아드 평영 200m에서 2분24초67로 금메달을 따낸 정승기는 4위를 차지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세계 철인들 제주도 총집합 바다로 뛰어 들고 있다.

국내 유일의 세계철인3종경기협회(WTC) 공인 대회인 2007 SC제일은행 제주국제아이언맨대회에 참가한 철인들이 26일 오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 들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현 플로리다 복귀

애리조나서 ‘방출 대기’ 22일만에

미국프로야구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에서 방출 대기 조지던 김병현(28·사진)이 26일 플로리다 말린스로 22일 만에 돌아왔다. 그러나 이날 신시내티 레즈와 복귀전서 1이닝 동안 4점이 주면서 부진했다.

플로리다 구단은 신시내티전에 앞서 홈페이지를 통해 애리조나에서 방출된 김병현과 자유계약선수 계약을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 4일 플로리다에서 웨이버 공시된 뒤 애리조나로 이적했던 김병현은 이로써 22일 만에 다시 플로리다로 복귀했다.

김병현은 곧바로 25일 로스터에 포함됐다. 프레디 곤잘레스 감독은 엔트리에 김병현의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 우안 구원 투수 로스 울프를 이날 트리플 A 멤버로 내려보냈다.

김병현은 원정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도착, 등번호 23번이 달린 유니폼을 입고 1-7로 뒤지던 7회부터 선발 세르히오 미트리로부터 곧바로 bat을 이어 받았다. 그러나 안타와 볼넷으로 1사 1, 2루 위기를 맞았고 애덤 던에게 좌월 스리런포를 헌납했다. 이후에도 2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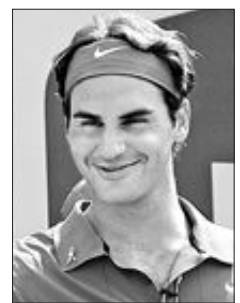


타와 안타를 내줘 4점을 허용한 뒤 8회 맷 린드스봄으로 교체됐다.

15일 플로리다전을 끝으로 11일간 실전 투구가 없었던 김병현은 컨디션에 문제를 노출했고 평균자책점이 5.23에서 5.59로 뛰었다. 팀은 7-11로 패했고 김병현은 시즌 성적 6승6패를 유지했다.

한편 플로리다의 곤잘레스 감독은 “마이에미에서 던지는 것을 즐겼던 김병현이 다시 돌아온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김병현이 지난 2주간 거의 실전 피칭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머릴 간 볼펜 피칭을 지켜 본 뒤 컨디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테니스 황제’ 페더러 세계랭킹 최다연속 1위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세계랭킹 1위·스위스·사진)가 남녀 역대 선수들 통틀어 세계랭킹 최다 연속 1위 신기록 수립을 바라보고 있다.

28일부터 열리는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대회 4연패에 도전하는 페더러는 27일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랭킹에서 187주 연속 세계 1위를 지킬 예정이다.

‘여제’ 슈테피 그라프(독일·은퇴)와 이 부문 공동 1위에 올라 있던 페더러는 이로써 역대 최장 기간 세계 1위 기록을 단독으로 보유하게 됐다.

2004년 2월2일 세계 1위에 오른 페더러는 이후 단 한번도 황제 자리를 빼앗기지 않았고 그 사이 메이저대회를 7차례나 석권하며 ‘역사상 최고 선수’, ‘빈틈 없는 완벽한 선수’의 영예를 누리고 있다.

페더러는 지난 2월27일에는 161주 연속 세계 1위 행진을 벌이며 1974년 7월부터 1977년 8월까지 160주간 세계 1위를 달렸던 지미 코너스(미국)의 기록을 30년 만에 갈아치우고 신기록을 작성했다. 이는 1973년 8월24일 ATP 랭킹 포인터제가 실시된 이후 연속 기록으로는 최장기록이다.

女핸드볼 올림픽행 비상

야예선 일본에 1점차 패

한국 여자핸드볼 대표팀이 2008 베이징을 앞둔 아시아지역 예선 첫 경기에서 일본에

지며 본선행 진출에 비상이 걸렸다. 임영철(효명건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25일 밤(한국시간)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대회 풀리그 1차전에서 일본에 29-30, 한 점 차로 아쉽게 패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 4개국이 출전한 이번 대회에는 우승팀에

계만 본선행 티켓이 주어진다. 전력 차이로 바서는 한국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지만 일본의 밀집 수비를 뚫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한국은 힘을 내며 줄곧 뒤따라갔지만 경기 종료 4초 전 29-29에서 결승골을 허용하며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신촌스포츠

〈27일〉
▲07/08 프랑스리그 <올림피크 리옹> 생

테티엔 <03 : 50·SBS스포츠>
▲2007 PGA 더 바클레이스 FR <04 : 00·SBS골프>
▲2007 LPGA 세이프웨이 클래식 FR <06 : 00·SBS골프>
▲제11회 IAAF 월드 챔피언십 육상선수권 <18 : 50·Xports>

〈28일〉
▲2007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 야쿠르트> <17 : 50·SBS스포츠>
▲2007 프로야구 <KIA : 두산> <18 : 30·MBC ESPN>
▲2007 세계육상선수권대회 <22 : 00·KBS N SPORTS>

www.hanbitgosi.co.kr ▶ 공무원합격 검색률 1위

2007년 국가직, 지방직 시험 수많은 합격자 배출= 수험생이 웃는 학원. 한빛이 함께합니다!!

7·9급 공무원

1차개강: 9월 1일
2차개강: 9월 3일

최고의 학습환경에서 최고의 열거를 이룬다!!

가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합직, 공무원, 출입국관리직, 교정직, 전산직, 농업직, 기술직

최고의 실력파 교수진 포진
- 알뜰함이 전해진다.
- 정통시설 500석(연비)
- 대한민국 최고의 학습환경
- 전국 최상의 실적을 검증
- 서울형 2,000여 배서

강의실 청정형 냉난방 설치
- 전 수경성 동영상 무리연속학습
- 아침 무료로강(08:00~08:30)
- 영아형 외국어 프로그램(영어)
- 오후 특이특강(15:30~16:30)
- 영일, 영영, 영일, 영일, 영일

전국 최강교수진은 한빛에 있다!!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34-0234

지재학원: 김영연PMS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222-8088), 한빛경찰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262-3553)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자격증 취득에서 취업(창업)까지!!

공인중개사과정 [개강: 9월3일]

- 과 정: 주간반(10:00~13:50) 야간반(19:00~22:30)
-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내 용: 최종 문제풀이(진전도별 진행)
- 교수진: 한영호·박한수 교수진(저자직강)
- 기 타: 이론부족시 동영상 무료제공

주책관리사 최종문제풀이 주말반(토·일모집중) (개강 9월 2일)

정보기술(IT)과정 (개강: 매월초)

- 과 정: 정보화기초1과정(화목 19:00~21:00) 정보화기초2과정(월·수·금 19:00~21:00) 자격증(사무자동화)과정(월~금 수시) 컴퓨터활용실무과정(월~금 19:00~21:00)
- 대 상: 고용보험 가입 직장인 또는 일반인
- 기 타: 훈련수로 후 개인별 환급(노동부)

노동부직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http://www.hdedu.co.kr

= 합격·세무 공무원 1800명 을 해본지 내년 상반기 2회 추가 모집예정! =

7·9급 공무원

= 전직종 완전대비 =

전·일반행정·교육행정직 [합격대비] 개강 9월 1일 주·야반 모의 (예약수용)

날 문제풀이만 강 (9월 3일 5주 완성)

= 無等은 옛부터 강의 第一! 합격 最多란 말을 듣고 있다. =

www.mdgosi.co.kr ☎ 222-4560

79급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www.hanbitgosi.co.kr

7·9급 공무원

가설직종: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무직, 법원직, 검찰직, 사회복합직, 공무원, 교정직, 농업직, 전산직, 보건직, 출입국관리, 기술직

79급 공무원 이쁜반 첫진도 (개강) 전남영행·교행문제풀이 (1일)

합격률 3,000여명

한빛공무원학원 1차개강: 9월 1일 2차개강: 9월 3일

전남대 후문 북구청 건너편 ☎234-0234 (전직종 첫진도=사전예약수용)